

담양창평초등학교, '창평슬로시티 생태체험 프로젝트' 성료

전교생, 벼농사 프로젝트 추수 체험활동

벼 베기·탈곡 체험·농요 배우기 등 체험

담양창평초등학교는 창평 지역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18일 학교 근처에 있는 벼 재배 논에서 전교생이 참여하여 벼농사 프로젝트 추수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감사님들이 체험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벼 베기와 탈곡 체험, 농요 배우기, 벼 낱알 관찰과 그림 그리기 등이 이어졌다. 벼 베기는 유치원을 포함한 저학년과 고학년 두 팀으로 나누어 시차를 두고 실시했다.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저학년은 가위로, 고학년은 어린이용 낫을

사용하고 장갑과 장화를 착용하여 안전을 강화했다.

탈곡 체험은 훌훌한 쇠날 사이로 벼를 잡아 당기면 벼 이삭의 낱알이 떨어지는 전통 방식인 흘태와 탈곡기를 이용하여 수확을 기쁨을 맛보았다.

추수 활동 이후 농요 배우기와 벼 낱알 관찰, 그림 그리기를 통해 벼농사의 중요성과 쌀 한 톨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벼농사 프로젝트는 벼농사 문화를 체험하고 농촌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하여 올해 2월 새 학년

준비 기간 중에 학년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기초부터 운영해 왔다.

지난 5월에 학생들이 직접 손 모내기과 우렁이 뿌리기를 시작으로 6월에 김매기, 7-9월에 벼의 생육 과정 관찰하기, 10월에 벼 베기와 탈곡 활동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였다.

전교학생회장인 정민정 학생은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쌀밥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점심 시간에 밥투정 하는 학생들이 없어 질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김승애 강사는 "벼농사 체험은 농촌의 문화를 이해하고 조상들의 협동과 화합 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더 큰 울림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평초등학교 교장은 "처음 해 보



는 벼 베기 활동 인데도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었고,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이루어 낸 성과이기에 의미가 더욱 크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 벼농사 관련 프로젝트를 운영하

겠다."고 전했다. 이번이 수확한 친환경 쌀은 학교 교직원을 비롯한 지역 기관에서 구

입해 주기로 하여 생산 농가의 수고에 보답할 수 있게 되었다.

담양=박종영기자

목포미향초등학교, '학생 심리 정서프로그램' 운영

원예·놀이 활동 중 학년에서 희망 프로그램으로 운영



최근 목포미향초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 마음방역 '학생 심리 정서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의 장기화로 학생들은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자유롭게 소통하던 일상을 경험하지 못 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항상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과 같은 교외 활동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올해에는 많은 학생들이 신체적 건강에 앞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지켜보며 교사들의 고민과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었다.

고민 끝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정

서적으로 자신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불안, 분노,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코로나19 마음방역 '학생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고, 원예와 놀이 활동 중 학년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프로그램은 각 교실에서, 활동 전·후 손 소독, 마스크 착용상태 수시 확인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원예 프로그램은 학년별 수준에 맞춰 야생화 누름꽃으로 이젤 액자 장식하기, 수경재배를 통해 식물에 대해 배우고 그 느낌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

하였고 놀이 프로그램은 구성원 간 친밀감 촉진활동, 적극적 경청활동, 자기 개방활동 등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리정서- 원예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4학년 이O민 학생은 "코로나 때문에 바깥활동을 할 수 없어서 힘들었는데 원예 선생님께서 학교에 와 주셔서 즐겁고 기쁜 수업이었다. 친구들과 추억을 더 많이 쌓아서 좋았다. 또 꽃을 보고 액자를 만들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꽃가루가 날아가는 것처럼 코로나도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활동 소감을 말했다.

'심리정서-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6학년 윤O윤 학생은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친구들과 마음껏 활동할 수 없고, 수학여행도 가지 못해서 서운하고 아쉬움이 컸는데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힘들었던 감정도 날려 버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된 것 같다. 또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부분도 알 수 있어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활동 소감을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진도교육청, '보배섬 진로진학 아카데미' 개최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보배섬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를 초청하여 진도 관내 고등학교 진로진학 정보를 소개하고, 자녀들의 학

초·중학교 학부모 초청

업설계와 진로탐색에 대한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했다.

1부에서는 '슬기로운 보배섬 고교 생활'이라는 주제로 관내 4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설명회를 실시했고, 고등학교별 학부모 대상 1:1 진학 상담과 진도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의 전통 예술공연을 진행한 후, 2부 행사인 '교육전문가와 함께하는 자녀교육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MBC

'공부가 머니?' 전문가 패널로 출연한 한국진로진학정보원이사이자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인 진동섭 명사를 초청하여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진로설계 및 공부머리 기르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특강은 코로나19 시대의 변화되어 가는 진로진학 정보와 자녀 교육 방안, 자유학년제-고교학점제-대학 입시로 이어지는 초·중고 연계 진로 설계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진도=조상용기자

무안교육청, 학생기초학력지원...수해력 지도 과정 연수

재능기부단 30여명 참여

무안교육지원청은 14일부터 4일간 무안모아 재능기부단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기초학력지원을 위한 수해력 지도 과정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수해력 지도 과정 강사(무안초등학교 교장 김보경, 무안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준호)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수

해력 이해를 위해 교구를 활용한 수갑각, 수세기, 자릿값, 덧셈, 뺄셈, 분수, 소수 지도 방법 등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사례 및 실천중심의 과정으로 쉽고 재미있게 방법을 전달했다. 무안모아 재능기부단은 80여명의 학부모, 지역민이 무안모아 학부모 아카데미 자격증반을 통해 음악줄넘기, 밸런스체조, 전래놀이, 자기도학습, 책놀이독서코칭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



교, 마을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학습성향을 파악하여 학생기초학력을 지원하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